

## Public Image of the City among Disaster-Vulnerable Population

- The Case of Cheongju City -

Masatsugu Nemoto<sup>1#</sup>, Jae Eun Lee<sup>2+</sup>, Myong Gu Hwang<sup>3</sup>

<sup>1</sup>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sup>2</sup>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 Chungdae-ro, Seo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sup>3</sup> Chungcheongbuk-do Provincial Government, 82 Sangdang-ro, Sangdang-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cognize public image of the city among disaster-vulnerable people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in a sample of 166 disabled and non-disabled people in Cheongju City. The result of analysis show that the public images of the city that the disabled has include transportation difficulty and inaccessibility to buildings, public restrooms, elevators and parking lots. Moreover, compared to non-disabled people, the disabled have more negative images of the city such as unkindness of staff and limited accessibility to famous sites due to the lack of required infrastructure for them. The findings from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evidence for promoting a support system for vulnerable population in the city.

**Key words:** public image, vulnerable people, disaster, SDGs

### 1. 서론

재난발생시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 고조는 2015년에 UN이 채택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sup>1)</sup>에서도 그 대차 필요성이 명기되어 있는 것처럼 재난 유형에 따른 대처 요령과 각종 매뉴얼 정비 그리고 안전 지도 작성 등 다방면에서 현실적 대응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관련 연구도 다수(Lee, 2010; Choi & Yang, 2017; Kim, *et. al.*, 2017; Kim, 2018; etc) 추진되고

있다. 한편 취약계층 이동권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 정비(Kim, 2001), 장애인 이동권 정책(Huh & Shin, 2011), 농촌 지역 고령자 이동권 증진(Lee & Seomun, 2013) 등이 있다. 나아가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GPS 기반 구조 요청 어플리케이션 연구(Park, 2017)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연구 역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날 한국은 노인이나 장애인, 외국인 등과 같은

<sup>#</sup> The 1st author: Nemoto Masatsugu, Tel. +82-43-249-1703, e-mail. [motomonemoto@gmail.com](mailto:motomonemoto@gmail.com)

<sup>+</sup> Corresponding author: Jae Eun Lee, Tel. +82-43-261-2197, Fax, +82-43-268-2197, e-mail. [jeunlee@cbnu.ac.kr](mailto:jeunlee@cbnu.ac.kr)

1) SDGs는 ODA와도 중요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17개 목표, 169개 세부 목표가 설정되어 있으며 그중에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SDGs는 지역주민들에 의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 평가하는 중요성을 제시하고 SDGs는 개발도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공유되어야 될 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재난취약계층의 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재난 취약계층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형태 자체가 재난에 취약하고, 대부분 노후화된 전기나 가스, 소방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것이 어려워 재난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난 피해가 예상되지만 확실한 대비가 어려운 상황이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적 장애 등으로 말미암아 피난 자체가 어렵다. 더욱이 자동차, 오토바이와 같은 대피 이동 수단을 보유하지 못하거나 이용이 어렵고, 다양한 매체를 재난 경보 및 대피 경보 등의 정보 전달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Kim, Yang, and Chung, 2014: 114-115).

이러한 가운데 재난발생시 취약계층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조사 및 피난계획 수립이 전개되고 있다(Nemoto & Ariga, 2014). 재난에서의 사회적 약자에 대해 일본에서는 “요배려자(要配慮者)”, “요원호자(要援護者)”, “재해약자(災害弱者)”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본의 ‘재해시 요원호자의 피난지원 가이드라인’을 보면, “재해시 요원호자란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여 재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선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는 등의 일련의 행동을 취하는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유아, 임산부 등을 들 수 있다(Sung & Choi, 2011: 3). 이와는 달리 안전취약계층을 사고와 재해를 당할 위험을 사전 방지할 수 있는 연결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상태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다(Moon & Han, 2017: 16). 안전취약계층은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자연적 환경의 변화로 인한 재해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건설산업의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 역시 안전취약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재난에 취약성을 가지는 계층은 안전약자, 재난약자, 안전취약자, 재난취약자, 그리고 재난안전약자 등의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Choi, Yang, and Song, 2017: 79).

우리사회에서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인식으로 예시

하면 영유아,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유불리에 따른 취약성이 주요하게 언급되고 있지만, 다문화 가족 등 외국인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Lee, 2016: 38).

그런데 그간 연구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내지 개별적 파악에 초점을 맞춘 경향이 강한 반면 지역사회 전체가 재난취약계층을 어떻게 포섭하고 있는지 이른바 공공성 이미지 상을 그리는 데에 불분명한 한계가 있었다. 도시 이미지에 대해서는 일찍이 케빈 린치(Kevin Lynch, 1960)에 의한 도시 이미지 연구, 더글라스 포티어스(Douglas Porteous, 1977)에 의한 도시 공간 인식 연구 등이 있다.

도시 이미지란 도시 공간에 대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일반화된 공통적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 공간은 가정, 직장, 쇼핑 장소, 여가 공간 및 이에 필요한 교통수단에 의해 연결된 공간이 된다. 여기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안전 취약계층에 의한 도시 공간 인식은 비장애인인 경우와 다를 수 있다. 즉, 그들의 안전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 이미지의 특성을 분석하고 구체적 극복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취약계층의 도시 공공 이미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으로 청주시 거주 장애인 및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시 이미지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 청주시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도시 이미지의 특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개선 방안 및 지자체 차원의 대응 필요성 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II. 이론적 검토

### 1. 재난취약계층 지원

#### 1) 재난발생시 취약계층

재난취약계층은 경제적, 신체적, 환경적, 정보적 측면에서 일반 사람들에 비해 재난에 대한 대비가 열악하고 대응 능력이 부족한 그룹으로 정의할 수 있다(Kim,

Yang, & Chung, 2014: 117). 이와는 달리 Sung & Choi(2011: 3)에서는 ‘재난 시 사회적 약자’라는 개념을 “고령자, 장애인, 유아, 임산부, 외국인 등 재난 현장에서 경제적, 신체적,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스스로의 힘으로는 환경 적응 능력이 불충분하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로 본다. Lee(2016: 38)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은 재난상황에서 스스로 자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을 강구하기 어려운 계층을 의미한다. 특히 재난취약계층 스스로 재난에 대응함에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난취약성을 갖는 계층으로 장애인, 노인, 다문화 가족, 여성, 아동 등이 포함된다. 즉 재난취약계층은 재난의 환경적 특성과 개인의 역량 사이에서 독립적으로 재난에 대응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의 특수성을 고려해 개발된 재난지원체계를 필요로 하는 집단으로 정의가 가능하다(Lee, 2016: 38-39).

대표적인 재난취약계층으로는 경제적, 신체적, 환경적 혹은 정보적 취약성을 보이는 노인, 장애인, 임산부, 영아 및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등이 있다. 이들은 노후화된 주거환경과 소방시설, 혹은 저소득, 보험 미가입, 부족한 정보, 이동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장애인은 선천적 요인보다 후천적으로 장애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노인장애인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장애인의 특성을 포괄한 재난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Roh & Kim, 2016: 32).

재난발생시 취약계층에 대한 위기관리<sup>2)</sup> 관련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로 법제도와 조직체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Lee(2010)는 한국의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위기관리 안전망의 설계 및 실행에서부터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신뢰도 높은 정보 구축과 효과적 대상 설정 방법 마련 및 생애과정적 접근 방법을 통한 위기관리 안전망 제도의 설계, 시행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Choi & Yang(2017)은 재난안전정책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인

식조사를 통해 재난안전약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재난과 안전에 취약한 대상에 관한 용어의 일원화, 재난안전약자에 관한 한 법제화, 실전훈련 및 교육,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지원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Kim, et. al.(2017)는 ‘재난약자’라는 용어를 재난발생시 정확한 상황판단과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정의하였고 그 유형으로 영유아, 고령자, 장애인, 외국인 등으로 구분해 각각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지원체계 개선방안으로 재난약자 관련 법령체계 개선, 피해경감 방안, 대응능력(회복력) 강화 방안, 재원 매뉴얼 제작 및 교육 훈련 방안 등을 도출하였다. Choi, Yang, and Song(2017)의 실증분석에서는 재난과 안전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용어의 일원화, 재난안전약자를 위한 법제화, 재난안전약자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안전관리의 필요성과 재난안전약자를 위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의미있는 내용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Kim & Lee(2018)은 재난약자 보호를 위한 재난 레질리언스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공동체와 개인의 취약성에 대한 물리적 역량, 행정·제도적 역량,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재난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재난 발생 시에도 재난 발생 이전 수준으로 복원, 회복을 수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한편 Nemoto & Ariga(2014)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본의 사전조사 방법 분석을 통해 지자체, 지역사회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해 구체적, 개인별 취약 내용에 대한 파악 및 지원 방안을 구축할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재난발생시 취약계층에 대한 법제도, 행정적 차원의 지원 필요성은 학문적으로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 상황임으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 필요한 단계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재난취약성 이론과 재난취약계층의 이동권  
취약성의 의미는 손상이나 부상(damage or injury)

2) 위기관리에 대한 학문적 체계에 대해서는 Lee(2012)을 참조.

을 입기 쉬운 경향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취약성이라고 함은 민감성에 대한 리스크의 비율로 정의되며, 취약성은 불안한 위해로부터 시스템이 입게 되는 예견된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혹은 시스템 피해의 또 다른 경향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난약자를 재난의 대비, 대응, 복구에 있어서 제공되는 기본적 장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나 해당 지역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또는 지리적·문화적 고립자, 노숙자, 심신허약자 및 어린이 등을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다(Kim & Ryu, 2015: 155-156; Choi, Yang, and Song, 2017: 69).

Shim, *et. al.*(2010)에서는 재난취약계층의 유형화에 따른 방재대책 방안을 제시했다. 노인의 경우에는 대피 우선순위가 명확해야 되는 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독거노인은 신속한 대피를 위해 담당인력이 지정되고, 아동에 있어서는 교육훈련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언어소통을 보조하기 위한 매뉴얼의 보급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Kim, Kim, and Roh, 2017: 66).

그리고 재난 취약계층의 현실에 대해 이동권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면 장애인, 고령자 이동권에 관한 선행연구가 다수 있다. Kim(2001)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 정비 연구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아무리 좋은 사회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물리적 접근권인 이동권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sup>3)</sup> 또한 이동권은 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을 위한 기본적 권리 보장 문제로 논의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편의시설 정비 현황, 대중교통 체계 정비 현황, 특별 교통 서비스 현황을 각각 분석하고 법제도 확대 개선, 장애인 교통 대책 수립, 시내버스 이용 접근권 확보, 행정대책 정비 및 시민의식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Huh & Shin(2011)은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정책 실태분석을 통해 보행시설과 교통시설 및 수단의 개선과 확충,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규정 강화와 세부지침 및 가이드라인 정비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농촌지역 고령자에 초점을 맞춘 Lee & Seomun(2013)는 충청남도 금산군 거주 60세 이상 고령자 125명을 대상으로 교통수단 이용실태와 만족도 및 외출 관련 실태를 설문조사하였고 대중교통수단 불편이 외출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이 이동권 관련 연구는 법제도와 교통수단을 대상으로 하는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장애인 관점에서 공공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접근성을 장애인단체가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다사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2017)의 경우, 공공 건물의 편의 시설을 매년 조사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금융기관 ATM 접근성 등을 조사하였다.

현재까지 다소 개별적, 분산적으로 이동권 실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 왔으나 재난 취약계층 본인 관점에서 도시 전체상에 대해 망라하고 접근하는 시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재난은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 역시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필요성이 있는 바, 재난 취약계층이 가지고 있는 도시 공공 이미지를 밝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2. 도시 공공 이미지

### 1) 도시 공간의 인식 패턴

글로벌리즘(glocalism) 시대를 맞아 각 도시는 도시의 차별화된 분야를 발굴하고 체계적인 마케팅 활동에 의한 도시의 국내외 경쟁력과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가고 있다. 국가나 도시에 있어 공공디자인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은 그 대상이 도시 이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목적이

3) 일상적인 사례를 연상한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라 하더라도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면 휠체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익의 목적을 지니는 공공 및 정부기관의 설치, 운영을 통해 그 대상이 하등의 수준의 질과 양으로 형성되고 이용, 관리되는가에 따라 도시 이미지나 쾌적성 및 정체성에 큰 영향을 주는 동시에 도시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들에도 선도적 효과가 크기 때문에 중요하다(Ahn & Kim, 2010: 59).

도시 공간에 관한 환경 심리학(Environment Psychology)적 관점에 의하면 인간이 도시 공간을 인식하는 패턴은 다음 2 가지가 있다(帶刀, 2017).

우선 행동 심리학에 있어서의 자극-반응 패턴이다. 이는 인간이 자극과 반응에 의해 도시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개인이 반응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화된 도시 공간이나 도시 환경의 이미지에 의해 인식하는 것이다.

도시 환경에 있어서의 인간행동 패턴을 분석한 연구 또한 다수 존재한다. 그중에서 비교적으로 성과를 올리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Chapin & Brail(1969)에 의한 유형이 있다.

첫째, 상호작용 수준으로 도시에 있어서의 공간행동을 개인 1명인지, 가족과 함께인지, 그 외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인지.

둘째, 위치로서 공간행동을 어디서 하는가. 가정인지, 근린인지, 그 외의 장소인지. 이 구분은 지리적 공간행동의 기초를 만든다.

셋째, 의무적 행동인지, 자유재량에 따른 행동인지. 개인은 어떠한 행동의 수행을 강요받을지 아니면 자유에 맡겨질지도 모른다. 예컨대 가정에서의 의무적 행동이라고 하면 가사 등이 있을 수 있고 가정 외에서는 통근, 통학, 통원 등이 있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유형에서는 개인의 공간행동이 문화적, 환경적, 생리적 구속 정도에 따라 변한다고 규정된다. 생리적 구속, 즉 수면과 식사 등은 거의 일정한 일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또한 문화적, 환경적 구속에 좌우되는 가정 외에서는 임의적 행동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데이터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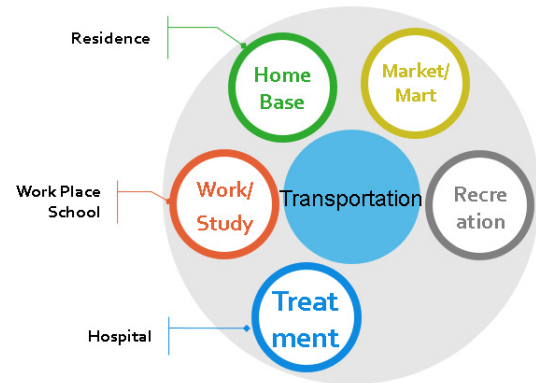


Figure 1. Components of Urban Space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홈베이스’에서의 행동이 중심이고 그곳을 떠난 행동은 그 대부분이 시내 장보기, 여가, 사회적 모임 등에 집중된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전형적 도시 공간은 가정, 직장, 쇼핑 장소, 여가 공간 및 이에 필요한 교통수단에 의해 연결된 공간이 된다.

Chapin & Brail(1969)이 미국 43개 도시에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어른들의 생활시간에서 의무적 활동을 빼 나머지 시간은 약 5시간이고 그중 4시간(80%)은 가정 내에서의 행동이다. 단, 아이가 없는 젊은 세대, 비정규직 세대는 가정 내 행동은 64%에 불과하다. 상급 계급, 육아 중 주부, 실업자에서는 85%가 가정 내의 임의 행정에 할당된다.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주민은 임의 행동을 가정에서 떠나서 실시하는 경향이 높다. 요컨대 미국 도시에서는 가정 안팎 임의행동을 결정하는 요인은 성별, 연령, 세대규모 등 차이와 생애주기 단계 및 소득, 학력에 따른 사회적 지위의 차이에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도시 공간에 있어서 인간의 공간행동에 관한 연구는 1980년대까지 성과에 따르면 특정한 시간과 도시공간에 거주하는 특정한 사회집단의 공간행동의 조사연구라는 단계에 멈춰 있다. 향후 도시정책, 계획 입안을 위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하다(帶刀, 2017).

하여간 도시 공간 및 도시 환경의 인식과 그곳에서의 인간 행동 패턴 사이에서는 어떠한 대응관계가 존재함은 분명하다. 이를 전제로 하면 도시공간과 환경 이미지와 인식에 의해 우리는 더 나은 행동에 관한 예측 나

아가 이에 기초한 물리적, 제도적 도시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도시 공간의 이동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거나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가 보다 자유로이 행동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될 것이다(帶刀, 2017).

## 2) 도시 이미지와 심적 지도(Mental Map)

도시 이미지만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이 더불어 공유하고 인식하는 도시에 대한 이미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시 이미지는 도시를 알리는 특징으로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Seo & Song, 2014: 236).

앞서 도시 공간에 관한 환경 심리학(Environment Psychology)적 관점에 의하면 인간이 도시 공간을 인식하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 2 가지 접근방법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즉, 행동 심리학에 있어서의 자극-반응에 대한 접근 방법이다. 이는 인간이 자극과 반응에 의해 도시 공간을 인식하는 것과, 개인이 반응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반화된 도시 공간이나 도시 환경의 이미지에 의해 인식하는 것이다.

후자의 방법은 심적 지도(Mental Map)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 이미지에 의한 도시공간의 인식 패턴을 연구한 캐빈 린치(Kevin Lynch)의 도시 이미지("The Image of the City", 1960)가 있다.<sup>4)</sup>

이에 따르면 인간은 도시환경의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그 단순화된 모델을 필요로 한다. 도시공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정 방향에 대한 공간적 이동

을 시도할 경우, 몇 가지 지점과 그것을 연결하는 길이 개별적으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구성된 모델로 인식된다. 그러므로 인간은 도시환경 전체의 복잡한 상황을 개인적 '심적 지도'를 이용함으로써 더 단순하게 모델을 만들어 도시 공간·도시환경을 인식하는 것이다.

캐빈 린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환경 이미지는 관찰자와 환경 사이의 쌍방향 작용과정의 결과이다. 환경은 구분과 관계를 시사하며 관찰자는 높은 적응성과 스스로의 목적에 따라 본인이 본 것을 선택하고 조직화하며 의미를 부여한다.'<sup>5)</sup>

이처럼 '심적 지도'의 주요 기능은 개인이 통상적 행동 패턴을 통해 도시공간을 이동할 경우, 그 공간행동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sup>6)</sup>

캐빈 린치에 따르면 '심적 지도'는 길거리(path), 경계(edge), 지구(district), 교차로(node), 대표적 존재(landmark)의 다섯 가지 요소로부터 구성된다.<sup>7)</sup>

그런데 도시 이미지는 크게 나누어 길거리 방향과 공간 지각의 두 가지가 있고 각각 다양한 이미지가 형성된다. 캐빈 린치는 도시 이미지 연구가 도시를 알기 쉽게(Imageability)<sup>8)</sup> 하는 단서를 제공할 수 있고<sup>9)</sup> 그렇게 되면 도시 거주자들의 편의성이 제고되고 일체감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한다.

단, 캐빈 린치의 연구는 개인 이미지를 강조하였기 때문에 공공적 이미지의 동일성을 중시하지 않고 다른 집단 이미지의 다양성에 주목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성별, 연령, 직업 등이 주요 요인임은 분명하다. 거주 연수 차이, 노동계급보다 중산계급이 더 넓은 심적 지도를 가지고 있는 등, 개인별 차이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공

4) 캐빈 린치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도시를 바라보았다.

5) 따라서 일정한 현실에 대한 이미지는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다를 것이다. 이미지는 각 개인이 만들어 내고 가슴 속에 품고 있는 것이지만 동일한 그룹 멤버 사이에서는 본질적 일치가 존재할 것이다. 특정한 물리적 현실과 공통적 문화 그리고 기본적인 생리학적 특징이 상호 작용할 경우에 공공적 이미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6) 이미지가 생활공간에서 방향을 정하는 데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몇 가지 특징을 필요로 한다. 즉, 진실일 것, 명확할 것, 안전한 이미지일 것, 그리고 미완결하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며,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된다.

7) 어떠한 물리적 현실에 대한 이미지는 그것을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그 요소가 달라질 수 있다. 예컨대 고속도로는 운전자에게는 Path이지만 보행자에게는 Edge가 될 것이다.

8) 예를 들어 방재를 위한 이미지를 들 수 있다.

9) 환경 이미지는 세 가지 성분 즉, 정체성, 구조 및 의미로 나눌 수 있다.

Table 1. Number of Questionnaires

	Place	Request Number	Collection Amount	Recovery Rate(%)
1	Department Office of Public Administration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0	10	100
2	Dasari Independent Living Center	10	10	100
3	Association for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ies in Chungbuk	50	31	62
4	Komduri Gymnasium in Chungbuk	50	45	90
5	Rehabilitation Center for the Disabled in Cheongju city	70	70	100
Total		190	166	87.4

공적 이미지의 비교적 우위성에 대한 연구가 향후 도시 정책·도시 계획에서 필요할 것이다(帶刀, 2017)<sup>10)</sup>.

이미지란 단순히 외적 특징만이 가져오는 결과가 아니라 관찰자가 만들어 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교육에 의해 이미지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sup>11)</sup> 또한 도시를 구성하는 물리적, 상징적, 문화적 및 공간적인 요소들이 어느 한 부분만 특성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도시를 형성해 나간다면, 그 도시는 다른 도시들과 차별화되고 고유의 정체성을 갖게 되면서 주민들에게 자부심과 안정감을 주고 도시에 대해 애착을 갖게 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지니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Seo & Song, 2014: 237).

### III.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Chapin & Brail(1969), 帶刀(2017) 등에 의해 제시된 도시 공간의 구성요소를 기초로 청주시 주요 도시공간을 취약계층 관점에서 10개 즉 ①의료기관, ②식당, ③직장, ④학교, ⑤복지시설, ⑥문화시설, ⑦장보기, ⑧종교시설, ⑨대피소, ⑩기타(가 보고 싶지만 못 가고 있는 곳)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하위 분석 내용은 이동권 연구 분석기준 등을 원용해 이용 빈도, 이동 방법, 이동 시간, 이용 이유, 불편 사항 등에 대한 설문을 배치하였다.

설문지는 2018년 4월 5일부터 13일까지 다음과 같이 총 190부 배포하였고 총 166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87.4%였다.

## IV. 분석 결과

### 1. 일반적 사항

일반적 사항으로 성별, 연령 및 거주 지역구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최종학력은 고졸, 대졸이 절반 이상, 동거자는 배우자 42.2%, 부모 27.7%, 혼자 23.5% 순으로 많았으며 장애 있음 75.9%(그중 중복 장애 7.2%)이면서도 보장구 없이 활동 가능한 경우가 53.0%인 한편 보장구를 이용하는 경우 휠체어, 발목 보호대, 허리보정, 지팡이 등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은 지체 장애 42.1%, 뇌병변 23.0%, 지적 장애 16.7, 자폐/자폐성 7.9% 등의 순으로 신체 외적인 유형과 신체 내적인 유형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사항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성별

남성 53.6%, 여성 44.0%, 미응답 2.4%로 약간 남성 응답자가 많았다.

#### 2) 연령

10대 이하 10.8%, 20대 12.7%, 30대 12.7%, 40대

10) 또한 다섯 가지 요소의 상호관계, 이미지의 수준, 이미지의 질, 이미지 전개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11) 예를 들어 수암골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들 수 있다.

Table 2. General Details (Total 166 person)

	Item	Type	Respondent (person)	Rate (%)		Item	Type	Respondent (person)	Rate (%)
1	Gender	Male	89	53.6	7	Type of disability (multiple responses)	Liver transplantation	1	0.8
		Female	73	44.0			Cerebral infarction	1	0.8
		Non response	4	2.4			Apoplexy	1	0.8
2	Age	Teenage and under	18	10.8			Encephalopathy	29	23.0
		Twenties	21	12.7			Development	3	2.4
		Thirties	21	12.7			Visual	1	0.8
		Forties	27	16.3			Speech	1	0.8
		Fifties	24	14.5			Autism	10	7.9
		Sixties	14	8.4			Mental	1	0.8
		Seventies and up	24	14.5			Intellectual	21	16.7
		Non response	17	10.2	Physical	53	42.1		
3	Highest level of education	Uneducated	8	4.8	8	Multiple disabilities	Myelopathy	1	0.8
		Elementary school	11	6.6			Hearing	3	2.4
		Junior high school	14	8.4			Paraplegia	1	0.8
		High school	52	31.3			Exist	12	7.2
		University graduate	60	36.1			Non exist	129	77.7
		Others	12	7.2			Non response	25	15.1
		Non response	9	5.4			9	Activity	Without orthosis
4	Residential district	Sangdang-gu	26	15.7	With orthosis	29			17.5
		Seowon-gu	43	25.9	Activity assistant	30			18.1
		Cheongwon-gu	34	20.5	Stay indoors	3			1.8
		Heungdeok-gu	37	22.3	Non response	16			9.6
		Non response	26	15.7	10	Orthosis			Electric wheelchair
5	Cohabiter	Single	39	23.5			Scooter	3	1.8
		Parent	46	27.7			Wheelchair	19	11.4
		Spouse	70	42.2			Stick/Crutch/Walker	3	1.8
		Relative	2	1.2			Prosthetic arm/leg	2	1.2
		Housing facilities	1	0.6			White cane	5	3.0
		Others	7	4.2			Others	16	9.6
		Non response	1	0.6			Non response	101	60.8
6	Disability	Exist	126	75.9					
		Non exist	18	10.8					
		Non response	22	13.3					

16.3%, 50대 14.5, 60대 8.4%, 70대 이상 14.5% 등의 분포로 나타나 청주시 전체 연령별 비율 구성에 비해 70대가 6.5% 높게 나타났다.<sup>12)</sup>

3) 최종학력

고졸 31.3%와 대졸 36.1%로 전체 67.4%를 차지하였다.

4) 거주 지역구

상당구 15.7%, 서원구 25.9%, 청원구 20.5%, 흥덕구 22.3% 등으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5) 동거자

혼자 23.5%, 부모 27.7%, 배우자 42.2% 등으로 나타났다.

12) 2018년 6월 기준 청주시 인령별 인구현황(비율)은 10대 이하 20%, 20대 14%, 30대 15%, 40대 17%, 50대 16%, 60대 10%, 70대 이상 8% 등으로 나타났다.

6) 장애 유무

장애 있음 75.9%, 없음 10.8%, 미응답 13.3%로 나타났는데 장애 있음이 많은 이유는 설문을 의뢰한 곳이 대부분 장애인 관련 기관이었기 때문이다.

7) 장애 유형

장애 유형은 지체 장애 42.1%, 뇌병변 23.0%, 지적 장애 16.7, 자폐/자폐성 7.9% 등의 순으로 많았다. 신체적 외적 장애가 아닌 내적 유형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중복 장애 유무

중복 장애 있음이 7.2%로 나타났다.

9) 활동

보장구 없이 53.0%, 활동 보조원 18.1%, 보장구 이용 17.5% 순으로 많았다. 하등의 보조/보장구가 필요한 경우가 30.6% 이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용 보장구

수동 휠체어 11.4%, 전동 휠체어 10.2%, 기타 9.6% 등의 순으로 많았다. 기타는 발목 보호대, 허리보정, 지팡이, 다리 지지대 등이었다.

설문조사 결과의 일반적 사항에 대해 장애가 없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들의 구성 비율은 적지만 장애 유무에 따라 구별하면 장애가 없는 것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2, 30대, 고졸(현재 대학생인 경우도 있음) 또는 대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 도시 공공 이미지

1) 의료기관

의료기관은 장애가 있는 경우 특히 이동 방법에 있어 휠체어, 택시(해피콜 등) 내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동 시간이 30-59분 소요되고 긴 거리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주차장 문제로 휠체어 이용하는 사람은 넓은 주차 공간이

Table 3. Details based on Existence and Non existence of Disabilities (Total 166 person)

	Item	Type	Existence of disability (person)	Non existence of disability (person)
1	Gender	Male	81	8
		Female	63	10
		Non response	4	0
2	Age	Teenage and under	17	1
		Twenties	10	11
		Thirties	16	5
		Forties	27	0
		Fifties	23	1
		Sixties	14	0
		Seventies and up	24	0
		Non response	17	0
3	Highest level of education	Uneducated	8	0
		Elementary school	11	0
		Junior high school	14	0
		High school	43	9
		University graduate	51	9
		Others	12	0
		Non response	9	0
4	Residential district	Sangdang-gu	21	5
		Seowon-gu	37	6
		Cheongwon-gu	31	3
		Heungdeok-gu	33	4
		Non response	26	0
5	Cohabiter	Single	36	3
		Parent	38	8
		Spouse	65	5
		Relative	1	1
		Housing facilities	0	1
		Others	7	0
		Non response	1	0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실히 확보하는 방안이 절실할 것으로 나타났다.

2) 식당

식당은 장애가 있는 경우 특히 이동 방법에 있어 휠체어, 택시(해피콜 등) 내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향

Table 4. Medical Institution

	Item	Type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26 person)	Non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8 person)
1	Frequency of use	Daily	3 (2.4)	0 (0.0)
		Once/Twice a week	22 (17.5)	1 (5.6)
		3 times a week	8 (6.3)	1 (5.6)
		Once/Twice a month	44 (34.9)	5 (27.8)
		Any time	13 (10.3)	1 (5.6)
		Others	28 (22.2)	8 (44.4)
2	Way of moving	On foot	17 (13.5)	6 (33.3)
		Wheelchair	5 (4.0)	0 (0.0)
		Taxi/Welfare taxi	18 (14.3)	0 (0.0)
		Public transportation	21 (16.7)	2 (11.1)
		Car	53 (42.1)	9 (50.0)
		Others	5 (4.0)	0 (0.0)
3	Necessary time to move	Within 15 minutes	24 (19.0)	4 (22.2)
		16-29 minutes	16 (12.7)	1 (5.6)
		30-59 minutes	35 (27.8)	4 (22.2)
		More than an hour	11 (8.7)	0 (0.0)
4	Cause of use	Distance	55 (43.7)	8 (44.4)
		Specific capacity	21 (16.7)	4 (22.2)
		Hospitability	17 (13.5)	3 (16.7)
		Cost	4 (3.2)	1 (5.6)
		Facility	6 (4.8)	0 (0.0)
		Others	19 (15.1)	1 (5.6)
5	Inconvenience	Distance	18 (14.3)	3 (16.7)
		Specific capacity	6 (4.8)	3 (16.7)
		Unkindness	2 (1.6)	3 (16.7)
		Cost	11 (8.7)	3 (16.7)
		Facility	7 (5.6)	1 (5.6)
		Others	16 (12.7)	2 (11.1)

이 있는 만큼 이동 시간이 30-59분 소요되고 긴 거리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화장실, 식탁, 주차 공간, 휠체어 공간 등에 불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직장

직장은 장애가 있는 경우 이동 시간이 30-59분 소요되지만 직장이 본인의 직성에 적합하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었다.

Table 5. Restaurant

	Item	Type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26 person)	Non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8 person)
1	Frequency of use	Daily	14 (11.1)	4 (22.2)
		Once/Twice a week	30 (23.8)	1 (5.6)
		3 times a week	12 (9.5)	4 (22.2)
		Once/Twice a month	35 (27.8)	4 (22.2)
		Any time	9 (7.1)	2 (11.1)
		Others	14 (11.1)	2 (11.1)
2	Way of moving	On foot	25 (19.8)	11 (61.1)
		Wheelchair	10 (7.9)	0 (0.0)
		Taxi/Welfare taxi	7 (5.6)	0 (0.0)
		Public transportation	6 (4.8)	0 (0.0)
		Car	53 (42.1)	5 (27.8)
		Others	5 (4.0)	0 (0.0)
3	Necessary time to move	Within 15 minutes	35 (27.8)	12 (66.7)
		16-29 minutes	16 (12.7)	0 (0.0)
		30-59 minutes	24 (19.0)	1 (5.6)
		More than an hour	3 (2.4)	0 (0.0)
4	Cause of use	Distance	35 (27.8)	6 (33.3)
		Taste	37 (29.4)	7 (38.9)
		Hospitability	7 (5.6)	0 (0.0)
		Cost	10 (7.9)	3 (16.7)
		Facility	16 (12.7)	0 (0.0)
		Others	8 (6.3)	1 (5.6)
5	Inconvenience	Distance	10 (7.9)	0 (0.0)
		Taste	10 (7.9)	1 (5.6)
		Unkindness	2 (1.6)	4 (22.2)
		Cost	11 (8.7)	2 (11.1)
		Facility	13 (10.3)	1 (5.6)
		Others	12 (9.5)	2 (11.1)

4) 학교

학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이동 방법으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비교적 많고 이동 시간에 30-59분 소요되는 경우가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취학 이유와 불편사항에 있어 친절/불친절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도 비장애인과 대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 Workplace

	Item	Type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26 person)	Non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8 person)
1	Way of moving	On foot	3 (2,4)	0 (0,0)
		Wheelchair	3 (2,4)	0 (0,0)
		Taxi/Welfare taxi	6 (4,8)	0 (0,0)
		Public transportation	4 (3,2)	0 (0,0)
		Car	20 (15,9)	3 (2,4)
		Others	4 (3,2)	0 (0,0)
2	Necessary time to move	Within 15 minutes	7 (5,6)	1 (0,8)
		16-29 minutes	10 (7,9)	1 (0,8)
		30-59 minutes	11 (8,7)	1 (0,8)
		More than an hour	2 (1,6)	0 (0,0)
3	Cause of work	Distance	2 (1,6)	0 (0,0)
		Appropriatenes	13 (10,3)	2 (1,6)
		Hospitability	6 (4,8)	0 (0,0)
		Salary	2 (1,6)	0 (0,0)
		Facility	1 (0,8)	0 (0,0)
		Others	12 (9,5)	1 (0,8)
5	Inconvenience	Distance	4 (3,2)	0 (0,0)
		Appropriatenes	3 (2,4)	1 (0,8)
		Unkindness	0 (0,0)	0 (0,0)
		Salary	2 (1,6)	0 (0,0)
		Facility	1 (0,8)	0 (0,0)
		Others	7 (5,6)	1 (0,8)

## 5) 복지시설

복지시설은 장애가 있는 경우 특히 이동 방법에 있어 휠체어, 택시(해피콜 등) 내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동 시간이 30-59분 소요되고 긴 거리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본인이 원하는 것과 적합성 그리고 직원의 친절함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6) 문화시설

문화시설은 구체적으로 영화관, 체육관 등을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용 빈도는 장애, 비장애를 불문하고 월 1, 2회가 가장 많았다. 한편 이동 방법은 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 택시(해피콜 등) 내지 대중교통을 이

Table 7. School

	Item	Type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26 person)	Non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8 person)
1	Way of moving	On foot	5 (4,0)	4 (3,2)
		Wheelchair	1 (0,8)	2 (1,6)
		Taxi/Welfare taxi	1 (0,8)	4 (3,2)
		Public transportation	2 (1,6)	0 (0,0)
		Car	19 (15,1)	4 (3,2)
		Others	4 (3,2)	2 (1,6)
2	Necessary time to move	Within 15 minutes	11 (8,7)	0 (0,0)
		16-29 minutes	3 (2,4)	4 (3,2)
		30-59 minutes	8 (6,3)	0 (0,0)
		More than an hour	1 (0,8)	1 (0,8)
3	Cause of entering school	Distance	13 (10,3)	2 (1,6)
		Appropriatenes	4 (3,2)	0 (0,0)
		Hospitability	5 (4,0)	1 (0,8)
		Educational expense	0 (0,0)	0 (0,0)
		Facility	2 (1,6)	0 (0,0)
		Others	2 (1,6)	2 (1,6)
5	Inconvenience	Distance	5 (4,0)	0 (0,0)
		Appropriatenes	2 (1,6)	1 (0,8)
		Unkindness	22 (17,5)	0 (0,0)
		Educational expense	0 (0,0)	0 (0,0)
		Facility	2 (1,6)	0 (0,0)
		Others	3 (2,4)	0 (0,0)

용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동 시간이 30-59분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주차 공간 협소, 휠체어 영화 관람석이 가장 앞쪽에 있어 목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있었다.

## 7) 장보기

장보기에 대해 장애가 있는 경우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1%로 가장 많았다. 한편 장보기 시 이동 방법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휠체어, 택시(해피콜 등) 내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이동 시간은 30분 이내가 가장 많았고 이용 이유도 거리가 가깝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 주차 공간 부

Table 8. Welfare facility

	Item	Type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26 person)	Non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8 person)
1	Frequency of use	Daily	23 (18.3)	0 (0.0)
		Once/Twice a week	31 (24.6)	1 (5.6)
		3 times a week	31 (24.6)	0 (0.0)
		Once/Twice a month	8 (6.3)	0 (0.0)
		Any time	4 (3.2)	0 (0.0)
		Others	3 (2.4)	0 (0.0)
2	Way of moving	On foot	3 (2.4)	0 (0.0)
		Wheelchair	5 (4.0)	0 (0.0)
		Taxi/Welfare taxi	14 (11.1)	0 (0.0)
		Public transportation	14 (11.1)	0 (0.0)
		Car	45 (35.7)	1 (5.6)
		Others	16 (12.7)	0 (0.0)
3	Necessary time to move	Within 15 minutes	11 (8.7)	1 (5.6)
		16-29 minutes	18 (14.3)	0 (0.0)
		30-59 minutes	41 (32.5)	1 (5.6)
		More than an hour	12 (9.5)	0 (0.0)
4	Cause of use	Distance	15 (11.9)	0 (0.0)
		Taste	48 (38.1)	1 (5.6)
		Hospitability	21 (16.7)	0 (0.0)
		Cost	9 (7.1)	0 (0.0)
		Facility	11 (8.7)	0 (0.0)
		Others	9 (7.1)	0 (0.0)
5	Inconvenience	Distance	18 (14.3)	0 (0.0)
		Taste	3 (2.4)	0 (0.0)
		Unkindness	1 (0.8)	0 (0.0)
		Cost	0 (0.0)	0 (0.0)
		Facility	4 (3.2)	0 (0.0)
		Others	6 (4.8)	1 (5.6)

죽과 장애인 전용 주차공간에 대한 일반인 위반 주차 등이 불편사항으로 지적되었다.

8) 종교시설

종교시설에 대해 장애가 있는 경우 이동 시간으로 30분 이내가 가장 많아 가까운 생활공간에서 종교적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편사항으로 주차 공간 부족 등이 가장 많은 비율로 지적되었다.

Table 9. Cultural Facilities

	Item	Type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26 person)	Non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8 person)
1	Frequency of use	Daily	8 (6.3)	0 (0.0)
		Once/Twice a week	11 (8.7)	0 (0.0)
		3 times a week	4 (3.2)	0 (0.0)
		Once/Twice a month	31 (24.6)	5 (27.8)
		Any time	7 (5.6)	2 (11.1)
		Others	16 (12.7)	3 (16.7)
2	Way of moving	On foot	2 (1.6)	2 (11.1)
		Wheelchair	5 (4.0)	0 (0.0)
		Taxi/Welfare taxi	7 (5.6)	0 (0.0)
		Public transportation	10 (7.9)	3 (16.7)
		Car	39 (31.0)	5 (27.8)
		Others	6 (4.8)	0 (0.0)
3	Necessary time to move	Within 15 minutes	15 (11.9)	2 (11.1)
		16-29 minutes	13 (10.3)	5 (27.8)
		30-59 minutes	18 (14.3)	1 (5.6)
		More than an hour	2 (1.6)	0 (0.0)
4	Cause of use	Distance	22 (17.5)	4 (22.2)
		Taste	24 (19.0)	7 (38.9)
		Hospitability	4 (3.2)	0 (0.0)
		Cost	5 (4.0)	1 (5.6)
		Facility	10 (7.9)	0 (0.0)
		Others	5 (4.0)	0 (0.0)
5	Inconvenience	Distance	8 (6.3)	2 (11.1)
		Taste	3 (2.4)	0 (0.0)
		Unkindness	1 (0.8)	0 (0.0)
		Cost	1 (0.8)	3 (16.7)
		Facility	6 (4.8)	0 (0.0)
		Others	11 (8.7)	1 (5.6)

9) 대피소

대피소는 그 위치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67% 전후로 높게 나타났다.

10) 가 보고 싶지만 못 가는 이유

장애가 있는 경우, 가 보고 싶지만 못 가고 있는 곳으로 동물원, 산기슭에 있는 드라마 촬영장, 산성, 식당, 양궁장, 영화관, 예술의 전당, 호텔 등이 제시되었다.

Table 10. Shopping

	Item	Type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26 person)	Non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8 person)
1	Shopping	Do	46 (36.5)	10 (55.6)
		Do not	53 (42.1)	5 (27.8)
2	Frequency of use	Daily	0 (0.0)	0 (0.0)
		Once/Twice a week	18 (14.3)	5 (27.8)
		3 times a week	8 (6.3)	1 (5.6)
		Once/Twice a month	18 (14.3)	3 (16.7)
		Any time	8 (6.3)	1 (5.6)
		Others	6 (4.8)	0 (0.0)
3	Way of moving	On foot	19 (15.1)	4 (22.2)
		Wheelchair	5 (4.0)	0 (0.0)
		Taxi/Welfare taxi	3 (2.4)	0 (0.0)
		Public transportation	4 (3.2)	0 (0.0)
		Car	24 (19.0)	6 (33.3)
		Others	3 (2.4)	0 (0.0)
4	Necessary time to move	Within 15 minutes	20 (15.9)	5 (27.8)
		16-29 minutes	13 (10.3)	3 (16.7)
		30-59 minutes	10 (7.9)	1 (5.6)
		More than an hour	1 (0.8)	0 (0.0)
5	Cause of use	Distance	36 (28.6)	6 (33.3)
		Quality	5 (4.0)	1 (5.6)
		Hospitability	0 (0.0)	0 (0.0)
		Price	18 (14.3)	1 (5.6)
		Facility	4 (3.2)	0 (0.0)
		Others	5 (4.0)	3 (16.7)
5	Inconvenience	Distance	2 (1.6)	1 (5.6)
		Quality	2 (1.6)	0 (0.0)
		Unkindness	1 (0.8)	1 (5.6)
		Price	2 (1.6)	1 (5.6)
		Facility	8 (6.3)	0 (0.0)
		Others	6 (4.8)	3 (16.7)

그러나 못 가고 있는 이유로 산기슭에 있는 동물원, 드라마 촬영장, 산성 등에 대한 휠체어의 물리적 접근성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영화관에 대한 물리적 접근은 가능하나 함께 가는 사람이 없다, 어린이 인형극이나 어린이 행사에 자폐성 자녀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자폐성 젊은이에 대한 어린이들의 시선 때문에 꺼리게 되는

Table 11. Religious Facility

	Item	Type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26 person)	Non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8 person)
1	Religious	Have	39 (31.0)	3 (16.7)
		Do not have	60 (47.6)	13 (72.2)
2	Way of moving	On foot	10 (7.9)	1 (5.6)
		Wheelchair	4 (3.2)	0 (0.0)
		Taxi/Welfare taxi	2 (1.6)	0 (0.0)
		Public transportation	4 (3.2)	0 (0.0)
		Car	15 (11.9)	2 (0.0)
		Others	6 (4.8)	0 (0.0)
3	Necessary time to move	Within 15 minutes	11 (8.7)	1 (5.6)
		16-29 minutes	12 (9.5)	1 (5.6)
		30-59 minutes	5 (4.0)	0 (0.0)
		More than an hour	3 (2.4)	0 (0.0)
4	Cause to go	Distance	15 (11.9)	2 (0.0)
		Preaching	13 (10.3)	1 (5.6)
		Hospitability	5 (4.0)	1 (5.6)
		Benefit	0 (0.0)	0 (0.0)
		Facility	3 (2.4)	0 (0.0)
5	Inconvenience	Others	5 (4.0)	0 (0.0)
		Distance	4 (3.2)	0 (0.0)
		Preaching	0 (0.0)	0 (0.0)
		Unkindness	0 (0.0)	0 (0.0)
		Benefit	2 (1.6)	0 (0.0)
		Facility	4 (3.2)	0 (0.0)
Others	5 (4.0)	1 (5.6)		

등 사람 간의 연대나 배려와 같은 문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령자 등 중에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시티투어 구성, 다양한 모임 구성 지원과 사회적 편견 관련 인권 교육을 어린이 맞춤형으로 실시하는 등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애가 없는 경우, 가 보고 싶지만 못 가고 있는 곳을 응답 수는 3개로 쓰레기 분리 수거장, 청주 동물원, 대청호 미술관 등이 있었다. 지역주민의 관심 분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 등) 공

Table 12. Evacuation Shelter

	Item	Type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26 person)	Non existence of disability (rate to 18 person)
1	Recognition	Know	15 (11.9)	6 (33.3)
		Do not know	85 (67.5)	12 (66.7)
2	Necessary time to move	Within 15 minutes	10 (7.9)	5 (27.8)
		16-29 minutes	1 (0.8)	0 (0.0)
		30-59 minutes	0 (0.0)	1 (5.6)
		More than an hour	0 (0.0)	0 (0.0)

Table 13. Place to want to visit but can not visit (case of with disability)

	Place to want to visit	Reason to want to visit	Reason to be not able to visit
1	Zoo at Cheongju	See animals, healing	Traffic inconvenience
2	Suamkol	Famous attraction in Cheongju	Inconvenience with wheelchair
3	Everywhere	-	Inconvenience with wheelchair
4	Sangdang Mountain Fortress	Cultural assets	Inconvenience of environment
5	Mountain Fortress	Scenery	lack of manpower
6	Rib Restraunt	Taste	No elevator
7	Kim Soo Nyung Archery Center	Excercise	Long distance
8	Theater	See movie	Inconvenience to go alone
9	Cheongju Arts Center	Puppet show, events for child	embarrassment as sixth-grade student to kindergartener
10	Ramada Hotel	Hotel experience	

Table 14. Place to want to visit but can not visit (case of with no disability)

	Place to want to visit	Reason to want to visit	Reason to be not able to visit
1	Separate trash bin	Interest in process of disposal	No application for a field trip
2	Zoo at Cheongju	See animals, healing	Traffic inconvenience
3	Daecheong Lake Art Museum	Interest in art work	Unstationed curator

개, 자동차 중심 사회구조 개편, 건물 위주 문화 진흥 지양 등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에 비해 물리적 접근성보다는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물리적, 내용적 접근성은 모두 동시에 제고되어야 될 상호 관계가 있다.

### V. 결론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갈수록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 재난관리와 재채구호는 거대한 프레임 체계와 세밀한 정책 전개가 동시에 필요한 분야이며, 사람에 대해 목적과 방향이 맞추어져야 한다(Song, 2015: 167). 예를 들어, 일본의

현장조치매뉴얼을 보면, 구체적인 실행뿐만 아니라 당해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고 재난으로부터 재난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지원할 시의 방법도 매뉴얼화하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실효성이 있다(Kim, et al., 2017: 160).

본 연구는 재난 취약계층의 도시 공공 이미지를 밝히기 위해 청주시 거주 장애인 및 일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시 공공 이미지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장애인 단체, 복지기관, 체육시설 등에서 190부를 배포, 회수된 166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우선 일반적 사항으로 성별, 연령 및 거주 지역구는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고 장애 있음 75.9%로 나타났다. 장애

유형은 지체 장애 42.1%, 뇌병변 23.0%, 지적 장애 16.7, 자폐/자폐성 7.9% 등의 순으로 신체 외적인 유형과 신체 내적인 유형 모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도시 공공 이미지로서 ①의료기관, ②식당, ③직장, ④학교, ⑤복지시설, ⑥문화시설, ⑦장보기, ⑧종교시설, ⑨대피소, ⑩기타(가 보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곳) 총 10개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장애인 관점 중심으로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기관과 직장, 복지시설과 문화시설은 휠체어, 택시(해피콜 등) 내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동 시간이 30-59분 소요되고 있으며 비장애인보다 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각 기관, 시설에 장애인용 주차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장애인이 점거하고 있거나 일반 주차장에서는 휠체어를 내려 탈 수 있는 공간이 없는 문제가 있다. 또한 주차 안내원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정리만 하고 휠체어나 장애인이 내려 탈 수 있는 공간 확인 및 확보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셋째, 학교, 복지시설 등에서는 편의시설 외에도 직원의 친절/불친절을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문화시설은 영화관, 체육관 등을 응답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주차 공간 협소, 휠체어 영화 관람석이 가장 앞쪽에 있어 목이 불편하다는 등 건물 구조 상 문제가 지적되었다.

다섯째, 장보기와 종교시설은 휠체어, 택시(해피콜 등) 내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이동 시간은 30분 이내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생활권 가까운 것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대피소는 그 위치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67% 전후로 높게 나타났다.

일곱째, 가보고 싶지만 못하고 있는 곳으로 동물원, 산기슭에 있는 드라마 촬영장, 산성, 식당, 양궁장, 영화관, 예술의 전당, 호텔 등이 제시되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의료기관과 직장, 복지시설과 문화시설 등에 대해 비장애인보다 시간은 소요되나 접근은 가능하지만 주차장 공간 협소와 휠체어 탑승 공간 필요

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한편 학교 등을 포함해 직원의 친절함이 중요시되고 있다. 또한 장보기와 종교시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외 대피소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동일 지역 내에 소재 명소이면서도 못 가고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다.

이처럼 청주시 거주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청주라는 도시 공공 이미지는 비장애인과 달리 이동에 시간이 걸리고 건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장애인 주차 공간 등에 신경을 써야 되는 한편 각종 시설 직원의 친절함 혹은 불친절을 비교적 많이 느낄 수 있으며 여전히 가 보지 못한 곳 몇 군데도 있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장보기와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이동 시간 30분 이내의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 가능하지만 이 역시 장애인 화장실이나 주차 공간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대피소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있다.

이와 같은 도시 공공 이미지를 근거로 향후 청주시 재난 취약계층 대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포함한 재난 취약계층은 비장애인보다 이동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그 실태에 의거한 위기관리 체제 구체화가 필요하다.

둘째, 재난 발생시에 대비해 장애인 주차장 및 휠체어 승하차 가능 공간 확보를 체계화하고 주차장 요원에 대한 주지가 필요하다.

셋째, 장보기와 종교시설은 생활공간에서 30분 전후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접근하고 있으므로 향후 도시계획 및 방재 계획 상에서도 일상품 구매와 종교 활동이 생활권 가까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안할 필요가 있다.

넷째, 대피소 인지도가 50% 이하로 낮은 것으로 향후 지역방재 실태 분석과 개선의 구체화 및 이와 관련한 교육, 훈련, 홍보가 필요하다.

다섯째, 같은 청주 시내에 살면서도 가 보지 못한 곳이 있음을 비장애인 입장에서 고려한다면 만약 그곳에서 위기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 대처하기가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예컨대 산기슭에 있는 동물원, 드라마 촬영장, 산성 같은 곳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하면 이동이나 구조대 접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현재 장애인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도 같은 도시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장애인 참여가 가능한 시티투어 기획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 관점에서 동선을 점검하는 등 재난 취약계층 관점의 도시 공공 이미지를 활용함으로써 재난 취약계층을 포함한 재난 대처 능력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째, 재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물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친절 내지 불친절, 인식 부족 과 사회적 편견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향후 재난 대책에 있어서도 상부상조, 인권과 같은 관점에서 재난 취약계층 지원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 장애인 단체 역할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sup>13)</sup>.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속성을 지닌 청주시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만큼 다양한 속성에 따른 특성을 추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나 본 연구의 주제가 재난 취약계층에 초점이 있는 관계 상 장애 유무에 따른 비교를 하였다. 향후 성별, 연령, 학력, 거주지구 등에 대한 추가적 통계처리<sup>14)</sup>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조사 대상이 청주시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도시 농촌 비교 나아가 국제 비교도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 공공 이미지에 대한 기초적 시도로서 향후 연구의 세밀한 재검토와 지속적인 조사 분석이 요청된다.

##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A2A03927173).

## References

- Ahn, Jin Keun and Joo Yun Kim. 2010. A Study on the Public Design Policy for City Image Improvement.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Spatial Design*. 5(2): 51-60.
- Chapin, F. S. Jr. & R. K. Brail. 1969. Human Activity Systems in the Metropolitan United States. *Environment and Behavior*. 1: 107-130.
- Chapin, F. S. Jr. & R. K. Brail. 1969. Human Activity Systems in the Metropolitan United States. *Environment and Behavior*. 1: 107-130.
- Choi, Kyung Sik and Gi Geun Yang. 2017. Improvement of Support System for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Seminar Proceeding*. 100-123.
- Choi, Kyung Sik, Gi Geun Yang, and Eun Ran Song. 2017. Improving the Support System for Disaster Vulnerable Population: The Survey of Civil Servants and Experts on Disaster Safety Policy. *Crisonomy*. 13(9): 67-82.
- Choi, Seung Beom. 2016. A Study on the Conditions for the Vitalization of Big-data Use in Local Governments.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6(1): 177-205.
- Dasari Independent Living Center for Disabled. 2017. *Disabled Facilities in Cheongju City Community*.
- Huh, Chang Deog and Ju Young Shin. 2011. The Current State of Mobility Rights for Disabled Persons in Korea and Its Direction for Improvement.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15(3): 1-25.
- Jang, Ji Hyun. 2017a. Analysing the Sustaionability of Social Enterprise Using System Dynamics Approach.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7(1): 63-86.
- Jang, Ji Hyun. 2017b. Exploring Feed-back Loops in the Causal Map to Explain the Relationships among Factors Affecting Educational Competitiveness and Conducting Dynamic

13) 앞서 이론적 검토 부분에서 언급한 다사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매년 청주시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를 실시하고 있어 이러한 내용을 지자체 차원 위기관리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4) 통계처리 방법으로 크로스 분석, 시스템다이내믹스와 피드백 루프(Jang, 2017ab),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 분석(Choi, 2016: 177-205)과 같은 연구도 향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 식당, 직장, 학교, 복지시설, 문화시설, 장보기, 종교시설, 대피소, 기타의 이동 방법, 이동 시간, 이용 이유, 불편 사항 등의 설문을 통한 통계분석만으로 도시 공공 이미지가 설명된다(Building the Image)고는 보기 어려우며 Outline map of Cheongju City, Structure and Identity, Imageability, Visual Form 등을 분석해 도시 공공 이미지의 Common Themes, Elements 분석을 통한 논리적 재구성이 향후 요구된다.

- Policy Simulations. *Social Economy & Policy Studies*. 7(3): 109-144.
- John Douglas Porteous. 1977. *Environment and Behavior: Planning and Everyday Urban Life*. Addison-Wesley.
- Kevin Lynch. 1960. *The Image of the City*. Cambridge MA: MIT Press.
- Kim, Do Hyeong, Jong Il Na, Sung Soo Byun, and Jae Eun Lee. 2017. *Disaster Relief Plan for Vulnerable People in Major Disaster*. Korea Disaster Relief Association.
- Kim, Ga Hee and Jae Eun Lee. 2017. Disaster Resilience Reinforcement for the Protection of Heat Wave Disaster Vulnerable People.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Theory and Praxis*. 153-169.
- Kim, Kyung Hye. 2001. Improvement of Transportation System to Secure Mobility Rights for Disabled Persons. *Urban Problem*. 36(397): 76-88.
- Kim, Myung Gu. 2014. Improvement Directions for Disaster-Safety Welfare of the Vulnerable Groups from Natural Disaster.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10(9): 113-135.
- Kim, Soo Dong, Sa Hong Lee, Kil Hyun Choi, and Chong Soo Cheung. 2017. A Comparative Study of on-site Action Manual for People with Disaster Vulnerability.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3(2): 155-162.
- Kim, Soung Wan, Hey Sung Kim, and Sung Min Roh. 2017. A Study on the Special Needs of the Hearing-Impaired Person for Disaster Response.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1(2): 63-88.
- Kim, Youn Hee and Hyeon Suk Ryu. 2015. An Empirical Study on Disaster and Safety Information Needs for Foreigners in South Korea. *Korean Review of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11(3): 151-176.
- Lee, Jae Eun. 2012. *Crisisonomy*. Seoul: Daeyoungmunhwasa.
- Lee, Ju Ho. 2010. Study on Social Safety Net for Socially Disadvantaged Class. *Korean Journal of National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4(2): 67-81.
- Lee, Ju Ho. 2016. Issue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Disaster Safety Education for Disaster Vulnerable Groups: Focusing on Multicultural Family. *Crisisonomy*. 12(11): 37-50.
- Lee, Kyong Jun and Seomun Jin Hee. 2013. A Study on the Transportation Welfare Alternatives to Enhance the Right of Mobility for the Elderly in Rural Area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tion Studies*. 27(1): 247-268.
- Moon, Yoo Mi and Kyung Bo Han. 2017. A Study on Disaster Anxiety Scale Consideration the Safety Vulnerable Group. *Journal of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19(2): 15-29.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2. *Developing Disaster Preparedness Contents Outreach Strategies for Disaster Vulnerable People*.
- Nemoto, Masatsugu and Ariga Eri. 2014. Improvement Strategy of Social Support System with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Comparative Study of Preliminary Survey Structure on Vulnerable People to Disaster between Korea and Japan. *Crisisonomy*. 10(6): 67-87.
- Park, Ju Young. 2017. Development of GPS based Self Triage App for Disaster Vulnerable Populations. *The Korean Journal of Fundamentals of Nursing*. 24(3): 230-242.
- Roh, Sung Min and Soung Wan Kim. 2016. A Study of Comprehensive Disaster Management System's Preferential Order Decision for Disabled-Inclusive Disaster Response. *Journal of Disability and Welfare*. 31: 29-48.
- Seo, Hye Ock and Hwan Jung Song. 2014. A Study on the City Image of Public Design: Focused on Child Protection Fence. *Journal of Communication Design*. 46: 234-241.
- Shim, Ki Oh, Sang Hyun Park, and Seong Hee Jeong. 2009. Research and Analysis of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or Vulnerable Populations in Disaster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Institute.
- Song, Hyo Jean. 2015. Assessment on Disaster-related Legislation in Gender Perspective. *Ewha Journal of Gender and Law*. 7(2): 147-170.
- Sung, Ki Whan and Il Moon Choi. 2011. A Research on Building Protecting System for the Socially Vulnerable in Large Scale Disaster Area. *Korean Review of Crisis and Emergency Management*. 7(1): 1-22.
- Takewaki Isao. 2017. Problems and Policy Implications of Urban Regeneration based on Study of Man and Environment Relation. *Autonomy Ibaraki*, 214: 65-85.
- 帯刀治. (2017). 都市再生に資するM.E.R研究からの課題提起と地域政策. 「自治権いばらき」, 214: 65-85.

##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국립방재연구원. 2012. 재난 취약자 대상 재난안전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전략 수립.
- 김가희, 이재은. 2017. 폭염 재난약자 보호를 위한 재난 레질리언스 강화 방안.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세미나발표논문집*. 153-169.
- 김경혜. 2001.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교통체계의 정비. *도시문제*. 36(397): 76-88.
- 김도형, 라정일, 변성수, 이재은. 2017. 대규모 재난 시 재난약자 지원방안. *희망브리지*.
- 김명구, 양기근, 정기성. 2014. 자연재난에 의한 재난취약계층의 재난안전복지 개선 방향: 전라북도 임실군의 노인계층을 중심으로. *Crisisonomy*. 10(9): 113-135.
- 김수동, 이사홍, 최길현, 정중수. 2017. 재난취약자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비교연구 - 한국과 일본의 장애인 대상으로.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13(2): 155-162.
- 김승완, 김희성, 노성민. 2017. 청각장애인 재난대응 욕구에 관한 연구. *재활복지*. 21(2): 63-88.
- 김윤희, 류현숙. 2015. 국내 거주 외국인의 재난안전 취약성에 관한 연구: 정보요구 사항에 대한 심층인터뷰 내용을 중심으로. *Crisisonomy*. 11(3): 151-176.
- 네모토 마사쓰구, 아리가 에리. 2014. 재난발생시 '재난약자'에 대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강화방안 연구: 한·일 양국의 재난약자에 대한 사전조사 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Crisisonomy*. 10(6): 67-87.
- 노성민, 김승완. 2016. 장애포괄적 의견을 고려한 종합적 재난관리체계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장애인복지학*. 31: 29-48.
- 다사리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017. 청주시 지역사회 2017년 장애인편의시설.
- 문유미, 한경보. 2017. 안전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재난 불안척도에 관한 연구.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19(2): 15-29.
- 박주영. 2017.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GPS 기반 Self Triage 앱 개발. *기본간호학회지*. 24(3): 230-242.
- 서혜옥, 송환중. 2014. 공공디자인의 도시이미지에 관한 연구: 어린이 보호펜스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학연구*. 46: 234-241.
- 성기환, 최일문. 2011. 대형 재난 현장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 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7(1): 1-22.
- 송효진. 2015. 젠더 관점에서 본 재난안전 관련 법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해구호법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7(2): 147-170.
- 심기오, 박상현, 정성희. 2010. 재난약자 방재대책 실태조사 및 분석. 소방방재청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 안진근, 김주연. 2010.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공간디자인학회논문집*. 5(2): 51-60.
- 이경준 · 서문진희. 2013. 농촌지역 노인들의 이동권 증진을 위한 교통복지적 대안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7(1): 247-268.
- 이재은. 2012. 위기관리학. 대영문화사.
- 이주호. 2010.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연구: 한국의 위기관리 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위기관리연구*. 4(2): 67-81.
- 이주호. 2016. 재난취약계층 재난안전교육 개선방안: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Crisisonomy*. 12(11): 37-50.
- 장지현. 2017a. 시스템다이나믹스를 활용한 사회적기업 지속가능성 시나리오 분석.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1): 63-86.
- 장지현. 2017b.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피이드백 푸프 탐색과 정책시뮬레이션.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7(3): 109-144.
- 최경식, 양기근, 송은란. 2017. 재난안전약자에 대한 지원시스템 개선방안: 재난안전정책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Crisisonomy*. 13(9): 67-82.
- 최경식, 양기근. 2017. 재난안전약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개선방안: 재난안전정책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조사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세미나발표논문집*. 100-123.
- 최승범. 2016. 지방자치단체 빅데이터의 활용 트렌드와 활성화 조건에 대한 연구. *사회적경제와 정책연구*. 6(1): 177-205.
- 허창덕, 신주영. 2011.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재활복지*. 15(3): 1-25.

---

Received: Jul. 12, 2018 / Revised: Jul. 26, 2018 / Accepted: Aug. 6, 2018

## 재난취약계층의 도시 공공 이미지

– 청주시 장애인 관점을 중심으로 –

국문초록 본 연구는 재난 취약계층의 도시 공공 이미지를 밝히기 위해 청주시 거주 장애인 및 일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도시 공공 이미지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 분석하였다. 설문지는 장애인 단체, 복지기관, 체육시설 등에서 190부를 배포, 회수된 166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청주시 거주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청주라는 도시 공공 이미지는 비장애인과 달리 이동에 시간이 걸리고 건물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장애인 화장실, 엘리베이터, 장애인 주차 공간 등에 신경을 써야 되는 한편 각종 시설 직원의 친절함 혹은 불친절을 비교적 많이 느낄 수 있으며 여전히 가 보지 못한 곳 몇 군대도 있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청주시 재난 취약계층 대책 체계화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공공 이미지, 취약계층, 재난, SDGs

Profiles **Masatsugu Nemoto** : He received his Ph.D.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09. He is a research fellow of 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 includes social economy, ODA and supporting vulnerable people(motomonemoto@gmail.com).

**Jae Eun Lee** : He received his B.A., M.A., Ph.D. from Yonsei University, Korea in 2000. 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at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which he has taught since 2000. His interesting subject and area of research and education is crisis & emergency management, organizational studies, and policy implementation. He has published 143 articles in journals and 11 books, including 10 co-author books(jeunlee@cbnu.ac.kr).

**Myong Gu Hwang** : He received his Ph.D. degree in Public Administration from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Korea in 2013. He is a policy advisor to the Chungcheongbuk-do governor. His current research interest includes social welfare, relationship addiction and big data analytics(hjbg2000@hanmail.net).